



洪逸童

홍길동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유명한 인물이지만 홍 일동하면 선뜻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세조 때 사람인데 대식가(大食家)로 이 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홍 일동이 진관사에 놀러가서 떡 한 그릇과 국수 세그릇을 비우고 거기다 더해 밥 세 사발과 두부 국수 아홉 그릇을 거뜬히 먹어 치웠다고 한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먹은 예는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우기 절에서 내려와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또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미 포식한 홍 일동이었으므로 사양하리라 믿었는데 웬걸 또 앉아서 삶은 닭 두 마리와 생선국 세 사발, 생선회 한 쟁반에 술 40여 사발을 마셨다. 같이 갔던 사람이 놀라서 소문을 퍼뜨렸던 것은 당연하다. 온 장안이 홍 일동 이야기로 떠들석하더니 마침내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었다.

세조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일동을 불러 물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느냐?”

일동은 대답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문대로 먹었사옵니다”

세조는 이 말을 들으시고

“참으로 장사모다. 기특하다”

고 칭찬하셨다.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임금님의 관심이었다.

그러나 홍 일동은 매우 청렴한 관리로서 평상시에 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단지 미숫가루와 순주(醇酒)

만 마실 뿐이었다고 한다. 세조는 신하의 궁한 생활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가 많이 먹었다는 사실에만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다. 세조는 그보다 먼저 홍 일동의 인물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시험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엽게도 홍 일동은 그뒤 홍주(洪州)에 갔다가 크게 대식한 후 얼마 아니되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 사람들이 그의 창자가 상해서 죽었을 것이라 의심하고 매우 애석해 하였다. 사실 홍 일동은 그의 창자만 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릇 자체가 커서 사람들은 그가 미처 큰 뜻을 펴 보지도 못한채 죽었다하여 애석해 했던 것이다.

홍 일동은 그 인물됨이 뛰어나고 성품 또한 천진하여 조금도 걸치레에 꽤념하지 않았다. 단지 흠이 있다면 술을 즐겨 마셨다는 것 뿐이다. 술을 마셔도 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풀잎으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데 그 소리가 너무 비장하고 우뢰와 같아 듣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고 하니 시대가 그를 맞이할 수 없는데서 오는 비통이었다고 나 할까.

결에 아무도 없고 홀로 앉아 있을 때는 반드시 낡은 거문고를 꺼내어 어루만지면서

“나의 거문고는 도연명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 뜻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고 탄식했다고도 한다. 중국 고사에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백아는 거문고를 잘랐는데 그 소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종자기였다는 것이다. 어느날 종자기가 병들어 먼저 죽게되자 자기 거문고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세상을 비판하고 절망하다가 백이는 다시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보니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이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삶이리라.

세조는 평소 홍 일동이 큰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하기로 했었다. 세조는 홍 일동이 화낼 것을 뻔히 알면서 불교를 예찬했다.

그러자 홍 일동이 임금님의 말씀이 옳지않다고 직언(直言)하였다. 흔히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지당하옵습니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아첨배의 소행이다. 그러나 홍 일동은 지당파가 아니었다.

세조는 진노하였다.

“이 놈 감히 어디라고 댕구하느냐”

고 하면서 좌우에 명하여 시퍼런 칼을 가져오게 했다.

“그 칼을 홍 일동의 목에다 대라”

세조의 호통이었다. 그러나 홍 일동은 목에 차가운 칼날이 와닿는데에도 태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를 연발하였다.

세조는 그 의연한 태도를 내심 호뭇하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척했다.

“너 지금도 내가 술을 준다면 마시겠느냐”

고 물었다. 일동은 서슴없이

“옛날에 어느 장수가 적국의 군주가 주는 한 동이

의 술과 돼지다리를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고 하옵는데 하물며 우리 임금님께서 주시는 술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세조가 한 동이의 술을 내렸다. 홍 일동은 거뜰히 받아 마셨다. 거나하게 취해도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신하가 있는 것을 보고 세조는 감격했고 끝내 치하하는 뜻으로 상을 내렸다고 한다.

세상에는 숨은 큰 인재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작은 인물이 위에 있고 큰 인물이 낮은 자리에 앉아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적재적소(適材適所)란 말이 있으나 말이 쉽지 실제로 이루기란 어려운 것이다. 인물의 크고 작은 것은 결코 옷의 값이나 승용차의 크기 또는 집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여 걸치레에만 힘쓰고 있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



朴 成 壽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부교수
- 한국사학회 이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 (現)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교수